

[북 스]

어린이 책꽂이



▲강아지똥 할아버지=‘강아지똥’의 저자 고(故) 권정생(1937~2007) 선생의 생전 일화들을 담은 그림책이다. 평생 자연의 품에서 작고 약하고 낮은 생명들과 함께했던 고인의 삶이 동화작가 장주석씨의 글과 서양화가 최석운씨의 해학적인 그림 속에 녹아있다.

(사계절·9천800원)



▲재개발 아파트=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미 시인의 첫 동시집. 시인은 녹록지 않은 재개발지역 아이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현수네 빈집’, ‘타워크레인’, ‘오줌싸개’ 등 어려움을 겪듯하게 이겨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시인의 파스칼 시선으로 빚어냈다.

(창개구리·8천원)



▲방정환=초등학생을 위한 위인동화 ‘새싹 인물전’ 시리즈.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평생 동안 어린이 사랑을 실천한 아동문학가 방정환의 일생을 담았다. ‘이제는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말하며 어린이를 위해 숨어있던 창작하고 다양한 소년문물을 펼친, 가슴 따뜻한 위인의 삶이 펼쳐진다.

(비룡소·7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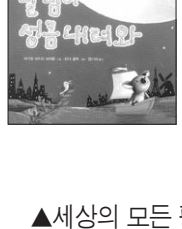
▲아홉개의 바둑돌=2002년 ‘날아라 비둘기’로 황금독재상을 받은 작가 김중렬씨의 동화. 갑작스런 아씨의 죽음으로 속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뚫다 한 주인공 주노, 어느 날 꿈에서 아씨의 영혼과 만나게 된다. 아씨에게 평소 싫어하던 바둑을 배우며 친구와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게 된다.

(피랑새·9천원)



▲행복한 일등=점수나 수치로 환산되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일깨우는 김재은씨의 동화다. 경쟁사회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왜 정당한 수단이 중요한지, 정당한 승리가 주는 성취감, 노력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짜릿한지를 이야기한다.

(아이세움·9천원)



▲달님이 성큼 내려와=유아용 그림책 시장의 스테디셀러의 작가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의 미 발표 유작. 브라운이 세상을 떠난 뒤에 오랫동안 잠자다 미국 버몬트 주의 어느 농장 헛간에 있던 트렁크에서 발견된 작품으로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6년 만인 지난해 미국에서 처음 출간됐다.

(책꾸러미·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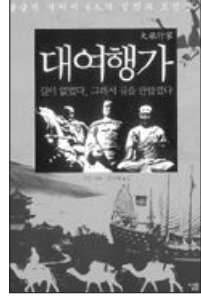


▲구름의 전람회=‘나의 트러워트 아저씨’의 작가 이세 히데코가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구름’에 대해 쓰고 그린 책.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을 캔버스 삼아 구름의 다양한 모습을 그렸으며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창어름미디어·9천500원)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가라

대여행가 우한 지음



볼평은 창조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라이선스 대 정 조우 박사는 굴착 장비 직원 149명에게 일에 대한 만족도를 묻고 이들의 업무 능력을 확인한 결과 볼평하는 직원일수록 더 창조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족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낳는다. 중국 역사학자 우한의 ‘대여행가’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불굴의 도전정신을 발휘했던 중국 여행가 6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길이 없었다, 그래서 길을 만들었다’는 부제처럼 현실의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 꿈을 펼친 인물들의 삶의 추적한다.

한나라 때 여행가이자 외교가 장건과 명나라 지리학자 서하객에 이르기까지 여섯 사람의 삶

을 통해 성공비결을 소개한다. 각 인물의 도전 정신을 ‘현재의 나의 위치에서 안주하지 마라’, ‘하루에 미쳐야 일가(一家)를 이룬다’ 등의 소주제로 나눠 소개한다. 장건은 서역 개척의 선구자이다. 한나라는 강력한 기병을 앞세워 자신을 압박하는 흉노족에 대항하기 위해 장건을 대월지(大月氏)로 파견한다. 협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장건은 길을 가던 중 흉노족에 사로잡혀 끈질길 회유 끝에 흉노족 부인도 얻고 자식도 낳는다. 흉노족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편하게 살 수도 있었던 장건은 한나라 사절을 나타내는 물건인 부절(符節)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며 11년의 긴 세월을 보내다가 탈출, 대월지에 찾아가 협공을 약속받고 13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다.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던 장건의 개척정신은 실크로드의 확장으로 이어져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것이다. 동진시대의 법현 스님은 열사의 사막에서 죽은 이들의 빠로 방향을 잡았고, 65세에 히말라야를 넘어 중국인 최초로 중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까지 간 인물이 됐다. 바닷길로 귀국길에 올라 폭풍우 등을 뚫고 414년 산둥(山東)성에 닿았던 그는 귀국할 때까지

순방한 나라가 30개국을 넘었다. 또 여행가 ‘불국기’를 집필했으며, 인도에서 가져온 수많은 계율 경전 등을 번역해 중국 불교에 커다란 혁신을 몰고 왔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의 실존 인물이며, 인도 여행기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의 저자인 현장 스님은 불학(佛學)에 대한 집념으로 서역을 뚫고 중국 최초의 인도 유학생이 됐다. 일본 율종(律宗)의 시조가 된 당나라 승려 감진은 폭풍으로 인한 난파 당하고, 열병으로 두 눈을 잃는 등을 어려움을 겪으며 여섯 차례 도전 끝에 일본행에 성공했다. 명나라 영락제의 신임을 받아 대항대를 이끌고 일곱 차례나 해외 원정에 나서 콜럼버스보다 1세기 앞서 아프리카 동부와 홍해까지 나아갔던 정화, 중국 산천과 동굴을 찾아다니며 지형과 지질을 과학적으로 기록한 ‘서하객유기(徐霞客遊記)’로 중국 근대 지리학을 세운 서하객의 치열한 도전정신이 소개된다. 이들 인물의 일대기를 소설처럼 흥미롭게 풀어냈으며, 풍부한 당시의 지도와 관련 그림 등을 곁들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살림·1만4천원)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중국 최초의 인도 유학생 현장 스님

스페인에 뿌리내린 정치이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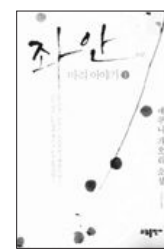
스페인 내전 앤서니 비버 지음



현대사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수행된 이념전쟁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전조적이었던 전쟁이 바로 1936~1939년 3년간 치열하게 벌어졌던 스페인 내전이다. 스페인 내전 종결 70주년을 맞아 출간된 ‘스페인 내전’은 수많은 예술작품의 소재를 제공했던 내전의 정모를 영국의 전쟁사학자 앤서니 비버가 세밀하게 조망한 책이다. 저자는 그동안 전쟁의 실상을 가려온 혁명적 낭만주의의 베일을 걷어내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쟁의 맨얼굴을 보여준다. 특히 책에서는 왜 공화진영이 그토록 열렬한 세계여론의 지지와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얻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끝없이 논란이 된 의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는다. 책은 이 밖에도 내전을 촉발했던 다양한 정치 이념들이 어떻게 스페인에 들어와 뿌리를 내렸고 내전 발발과 이후 전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조지 오웰과 앙드레 말로, 헤밍웨이 등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전쟁에 개입했던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의 이야기까지 800여쪽의 두툼한 분량 속에 풀어놓는다. 1982년 출간했던 저자의 책을 손질해 내놓은 것으로 2005년 스페인에서 출간했다. (교양인·3만6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남녀 주인공의 반세기 사랑

좌안... 우안... 에쿠니 가오리 외 2인 지음



국내에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에쿠니 가오리와 츠치 히토나리가 10년만에 또 한번의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화제를 모았던 ‘반정과 열정 사이’(1·2)는 두 작가가 각각 남녀 주인공 아오이와 준세이의 시선으로 사랑의 아련함을 노래,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던 작품이다. 이번엔 나온 ‘좌안-마리 이야기 1·2(사진)’, ‘우안-큐 이야기 1·2’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에쿠니 가오리는 여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츠치 히토나리는 남자 주인공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 결과물이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50년 동안 때론 만나고, 때론 헤어지며 인연을 나누고 사랑을 이어간다. ‘좌안’의 주인공 마리는 춤과 술과 남자를 좋아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반면 ‘우안’의 주인공 큐는 신비한 초능력으로 주위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다섯 살 때 이웃으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자신들과 언제나 함께했던 마리의 오빠 소이치의 죽음을 겪으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펼쳐나가게 된다. ‘인생’이라는 감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남녀의 이야기가 두 작가의 특유의 담담한 문체로 전개된다. (소담·각 권 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의 꿈과 상상력의 자서전

달나라 도둑 김주영 지음



‘객주’, ‘화척’의 작가 김주영이 인생의 길목에서 마주한 질문들을 상상력으로 풀어나온 상상수화집 ‘달나라 도둑’을 펴냈다. ‘언제나 배고팠고 어딘가 아팠으며 무엇인가 끌려왔던 어린 시절의 김주영에게 바친다’는 헌사를 쓴 저자는 이 책을 ‘꿈과 상상력의 자서전’이라고 칭했다. 저자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키워드는 길, 소년과 소녀, 이야기, 인생, 꿈 등 모두 6개로 모두 62편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냈다. 글의 소재는 현실과 상상을 오고 간다. 작품 속 주인공도 사람, 잠미, 늑대, 소 등 다채롭다. 책 속에는 병석에 누워 오직 바다를 꿈꾸다 한라미 돌고래가 되어버린 소년(바다가 보내 준 선물)이 등장하고 물로 올라와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고래도 만날 수 있다.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에 사파나루 한그루를 심고 싶은 네 팔 소녀가 꿈을 이룬 이야기며 어느날 갑자기 자신과 체형, 나이가 비슷한 사내의 뒤를 밟다 결국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저자는 버려져거나 쓸모없는 것들에 오히려 보석같은 지혜와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되었다고 고백하고 그 전달체는 ‘상상력’이었다고 말한다. (비채·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상임부동산
(대)223-1140, 5210 헬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지만 골라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보부동산컨설팅
(대)261-8949 헬 011-602-2233
(신수동 543-51(두일타로입구 건너거리)
▶ 판매매매
▶ 분양매매
▶ 건물매매
▶ 고시원 및 원룸주택매매
▶ 주유소매매

국민공인중개사
헬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금 매매 증개 전문)
공시지가2억매매가1억2천만원
▶ 상업지역 130P 삼각동
▶ 공시지가+건물과표13억매매가7억5천
▶ 45m도로 점 목욕탕 및 복합상가+주목
▶ 분양가8억아파트1800세대 상가매매가2억5천
▶ 35m도로 점 1층상가 건물 약 100p 땅 지분 93p
▶ 관의원 내과 직할
▶ 공시지가+건물과표6억매매가3억5천
▶ 현재 한의원 경영 중대 130p 건 230p 상업지역
▶ 공시지가+건물과표7억매매가4억2천
▶ 대 100p 건 300p 상업지역
▶ 상업지역 땅약95p공시지가3억5천매매가2억4천
▶ 30m 도로 점
▶ 감정가3억8천매매가2억
▶ 잠성대 270p 건 180p
▶ 1층 점포 6칸 빌도 주택 2동
▶ 2층 사무실
▶ 32억빌딩금매
▶ 대 200p 건 450p
▶ 8억의원 빌2350만원 월 13억포함
▶ 감정가45억매매가24억5천
▶ 빌딩금매 대지500p 건평1000p 지하1층, 지상 5층전체공실
▶ 환승주유소금매
▶ 대 600p 세차시설 캐스터 주유기 12대
▶ 매 12억 용자 6억포함
▶ 환승,철도,요양원,별장부지
▶ 9500p 현재 황도방 창고관리실
▶ 주택조경수 식재 딱 4억5천
▶ 59억 빌딩 대 1000㎡ 건 5500㎡ 보증금 20억
▶ 월세 4천 용자 15억 포함
▶ 장성임야사슴목장,필장 100000p 4억7천
▶ 공시지가+건물과표 15억
▶ 대 300p 건 350p 매매 11억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찰효율성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선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062)973-9174, 016-757-8800
특지구합 수완지구 건축상담
▶ 청단지구상업용지
▶ 주유소
▶ 수완지구개발지구
▶ 신창택지구개발지구
▶ 전 용 가능한 금매물
▶ 우량임야
▶ 상촌동 260평
▶ 건물매도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1천만원~1000억원)
▶ 062)973-9177, 010-3625-1362
▶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번영 공인중개사
(062)531-4665
동립2지구동립병원앞
모텔
▶ 신축모텔(매매,임대)
▶ 무인모텔(매매,임대)
▶ 일반모텔(매매,임대)
▶ 대중사우나(매매,임대)
▶ 고시원(매매)